
2020년 제31호 방송심의보고서

2020. 7. 24. ~ 7. 30.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7. 24.	시청률	0.038

【총 평】

‘단박톡’은 북한의 대중매체가 달라지고 있음을 주목하고 새롭게 변화된 콘텐츠와 남북 사이버 공간이 한반도 평화를 잇는 새로운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일깨우는 기획이 돋보였다. 북한 대중매체의 달라진 모습과 북한의 스마트폰 이용 세대 증가, 남북 사이버 문화의 변화를 토대로 이를 남북 연결고리로 이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하자고 제시했다. 북한 너튜브의 다양한 트렌드 변화, 북한 공영방송인 조선중앙TV 프로그램의 달라진 포맷과 내용을 실제 영상물을 통해 상세히 소개해 설득력을 높였다. ‘북마크TV’는 코로나19 위기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영웅’을 내세우는 이벤트를 소개해 북한의 최근 동향과 속사정을 깊이 있게 전달했다.

【구성 및 내용】

‘단박톡’은 유튜브를 소재로 북한의 대중문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폈는데 폐쇄적인 경향을 보이던 북한이 왜 소통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가늠해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북마크TV’에서 소개한 ‘영웅띄우기’는 현재 북한이 처한 어려움의 정도를 짐작해볼 수 있는 좋은 소재였다.

북한 당국이 먹방과 일상의 체험 그리고 쇼핑정보 등 유튜브 공간의 소재와 표현방식을 받아들이고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북한사회에 개방적인 정보 유통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이미 전성기를 맞고 있는 ‘1인 방송’ 너튜브가 북한에도 존재하고 있고 콘텐츠도 영어로 북한관광, 음식물을 소개하는 영상을 비롯해 어린이 너튜브, 먹방, 요리, 쇼핑 등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실제 영상물을 통해 소개해 흡인력을 높였다. 또, 북한 공영방송인 조선중앙TV도 종전 딱딱했던 방송내용이 먹방식, ‘6시 내고향’식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북한이 자본주의의 침투를 막기 위해 모기장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창문자체를 열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한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의 실리는 챙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북마크TV>는 지하철 전시품을 통한 영웅 띄우기, 백두산 촬영가의 분투 모델 제시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소개됐다. 전승역이라는 지하철 공간에 전쟁영웅의 일화를 담은 사진을 전시해 내부결속을 다지려고 하는 시도를 소개했는데 전시된 사진과 주민들의 반응에서 현재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잘 느낄 수 있었다. 북한이 직접 만든 신형 지하철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간접적인 기회를 제공했다.

【참고사항】

08:38 ‘사회주의 국가’를 ‘사회주의 국가’로 자막을 오기.

09:13 ‘체제 유지’를 ‘체제 유지’로 오기.

프로그램	최일구의 정말		
방송일자	2020. 7. 24.	시청률	0.006

【총 평】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물려 탄생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지난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선도형 경제와 저탄소 경제, 포용사회로의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언하였다. 이와 관련 “위기와 변화의 시대, 한국판 뉴딜이 답이다”는 대한민국 경제구조를 바꾸기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100여 년 전 탄생한 미국 뉴딜과 뉴딜의 실체, 한국판 뉴딜 정책 등 구체적인 내용 구성 덕분에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청사진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겪게 될 변화와 영향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시청자들에게 유익함을 제공하였다.

【구성 및 내용】

시청자들은 정부가 계획한 ‘한국판 뉴딜’ 정책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정책의 특징은 무엇인지, ‘한국판 뉴딜’이 왜 대한민국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인지,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과 변화를 주는지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였고, 새로운 정책 비전에 대한 이해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한국판 뉴딜정책’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루즈벨트 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설명하면서 당시 미국이 경제 대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부분을 강조해서 ‘한국판 뉴딜정책’의 비전을 제시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명언을 언급하며 지금 우리가 ‘한국판 뉴딜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도 충분히 언급이 잘 되었다.

KDI 소개와 한국판 뉴딜이 필요한 이유, 미국 대공황과 비교, 한국판 뉴딜의 중심축인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이 지향하는 점과 세부적인 계획을 살펴보았고 가장 우려가 되는 재정 부분에 대한 걱정과 이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고 미국 대공황을 다시 한 번 예로 들면서 이 정책이 비단 우리만의 정책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임을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 이후에 달라질 우리의 모습을 미리 그려보고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선결 조건을 제시하면서 사회적인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다.

‘한국판 뉴딜’은 4차 산업시대에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잘 담겨 있다는 점, “전환·능력 역량 강화·안전망”이라는 삼겹축으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은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이라는 것,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여 “변화의 기회”로 삼으려는 정부의 의지 등을 설득력 있게 그려냈다.

1930년대의 미국 대공황 때와 2020년 코로나19 경제 위기 때 비교, 100여 년 전의 후버 댐과 지금의 데이터댐, 미국의 뉴딜정책의 세 가지 측면인 빈곤한 국민을 구제하는 새로운 정책과 경제회복 경기부양 정책 그리고 개혁정책을 살펴보고 그린뉴딜이 무엇인지, 생태계 파괴로 인한 경제와 환경의 공생, 한국판 뉴딜이 국민의 삶에 가져 올 변화는 무엇인지,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나 노력 등을 살펴보았다.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20. 7. 25.	시청률	0.023

【총 평】

산뜻한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주민 생활을 편리하게 바꾼 하남시의 민원전문상담관 제도 운영사례와 충남 태안초등학교의 비대면 시대 차량이동형 등하교 사례 등 수범사례가 소개했다. 하남시의 민원전문상담관 제도는 유사한 제도와 사례가 이미 이뤄지고 있으며, 충남 태안의 차량 이동형 등하교 시스템 구축은 민식이법 등의 사회이슈와 맞물려 모두를 위하는 개선책으로 제시됐다. <우리동네 개선문>은 전국 곳곳의 '우리 동네'의 문제점을 조명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순기능과 함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책까지 제시하여 메시지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구성 및 내용】

■ 하남시 민원전문상담관제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공무원 폭언 및 폭행사례가 2018년에 비해 2019년에는 10.3% 이상 증가한 38,054건 정도 발생하였다. 관공서를 찾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이 잦아지면서 지자체에서는 모의훈련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남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경험, 전문성, 노하우를 가진 퇴직공무원을 민원전문상담관으로 임명해 민원업무를 지원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높인 수범사례가 상세히 소개됐다. 하남시는 민원전문상담관 제도를 도입했다. 30년 이상 공직 근무한 퇴직공무원을 위촉하여 공직에서 쌓아온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서비스와 업무지원을 하고, 후배 공무원들에게 여러 시점과 해결책을 제공하며, 다양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바야흐로 비대면 시대, 차량 이동형 등하교

코로나19 시대에서 생활 속 곳곳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서비스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충남 태안에서는 학교 등하교에 있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도입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부모님들이 비접촉 등교를 선호함에 따라 기존 도보로 오던 학생들도 차량으로 많이 등하교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그 만큼 차량이 몰려 혼잡하며 위험하게 등하교가 이뤄지며 민원도 발생했다. 이에 학교와 태안군, 경찰 등이 서로 협조하여 인근 공영주차장을 활용하여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등하교가 시작되었다. 모범 운전자, 학부모 등 자원봉사의 도움도 있었다. 이는 기존 방식과 달리 안전성이 확보되어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민식이법 시행 이후 학교 앞 주정차 금지가 되며 지난달부터 학교 앞 불법 주정차량의 주민 신고가 가능해지며 본 서비스가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언택트 시대 차량이동형 등하교 제도시행의 필요성과 배경으로 코로나 예방, 학교앞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 해소 등이 제시돼 설득력을 높였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7. 26.	시청률	0.008

【총 평】

故 최속현 선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체육계의 폭력적 관행을 고발하고, 관련 단체의 미온적인 대응이 초래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설득력이 높았다. 트라이애슬론 유망주 최속현 선수의 극단적 선택은 사회적 파장이 컸다. 감독과 팀닥터, 선배의 지속적인 폭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구조의 손길을 내밀었는데도 이를 외면해 급기야 극단적 파국을 맞고 말았다.

<PD리포트 이슈 본(本)> “체육계 악습, 이제는 끊어야 한다”는 최선수가 왜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나, 왜 체육계 악습은 사라지지 않나, 구조적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파헤쳤다. 또, ‘제2의 최속현 선수의 비극’을 막기 위해 성적지상주의 탈피 등 대책과 개선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해 설득력을 높였다.

【구성 및 내용】

故 최속현 선수가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여줌으로써 문제의 실체를 시청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효과적인 내용 구성이었고 메시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

경주시청과 경찰 그리고 경기단체의 묵인과 방조, 대한체육회의 잘못된 관행이 고 최속현 선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절망의 실체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사실확인을 통해 제시했다. 최선수 아버지 인터뷰, 동료선수의 인터뷰, 팀닥터와 최선수 통화 녹취물 공개, 경주시청, 철인3종협회, 경주경찰서, 스포츠인권센터 등이 최선수의 구조요청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점을 밝혀냈다. 선수의 문제 상황을 인지한 관련 기관들의 안일한 대처를 꼬집어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점을 알 수 있었으며, 반성을 촉구하는 기회가 됐다

대한체육회가 운영 중인 스포츠인권센터의 소극적이고 부적절한 대응에는 적절치 않은 인원 구성 그리고 전문성 부족 등이 문제가 밑바탕에 깔려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분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설득력이 있었다. 그리고 체육계에 폭력이 일상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은 성적지상주의에 있고 엘리트 스포츠 그리고 국가주의 스포츠가 야기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수 없다는 메시지로 핵심을 관통했다. 특히, ‘제2의 최속현 선수의 비극’을 막기 위해 성적지상주의 탈피 등 대책과 개선방안으로 스포츠인권센터 운영, 국위선양을 위한 엘리트 스포츠 육성을 위한 성적 지상주의의 탈피 등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참고사항】

16:46 전직 운동선수 인터뷰에서 “저는 기관으로써는 바꾸기는 힘들다고”에서 ‘기관’은 자격을 의미하는 부사격조사이므로 ‘기관으로서’로 표기해야 한다.

프로그램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7. 26.	시청률	0.061

【총 평】

미소만개부부라는 애칭을 붙여도 좋을 만큼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귀농 8년 차 부부의 복숭아 인생, “비싼 값 한다! 복숭아 명인의 한판 대결”을 방송했다. 전남 화순에서 다른 과일농장과 차별화 된 재배법으로 유기농 복숭아 농사를 짓는 주인공 부부의 알콩달콩한 일상, 유기농법 재배를 고집하는 부부의 뜻심, 손 많이 가는 복숭아 농사에 푹 빠진 부부의 소박함, 어설프지만 나름 분업화를 실시중인 부부, 힘든 노동에도 항상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부부 모습, 나부터 실천한다는 부부의 환경 철학 등은 시청자들에게 무더위를 잊게 하는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이 밖에 주인공의 농사철학과 부단히 연구 노력하는 모습 등을 통해 복숭아 명인임을 증명해 낸 구성으로, 프로그램 기획의도를 잘 살렸고, 복숭아를 함께 수확하고 배송 포장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도 편집 없이 그대로 담아내 바쁜 농가의 일상을 보여주었다.

【구성 및 내용】

전남 화순의 귀농 8년차 복숭아 명인을 소개했는데 무농약 농법의 의의도 충분히 강조가 잘 되었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도 새삼 느끼게 해주었다. 또, 한창 복숭아철이라 집집마다 복숭아를 많이 사서 먹는 시기라 더 와 닿았다.

유기농에 대한 주인공의 확신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유기농을 지키려는 주인공의 노력을 잔잔하게 소개해 인상적이었다. 복숭아를 수확하고 배송하는 과정까지를 그려내면서 부부간의 정겨운 대화가 느껴졌고 천연 방제작업으로 여러 가지 천연 해충 기피제를 발명하는 과정과 실제로 그것을 실험해보는 장면 위주로 소개했다. 기피제에 대한 설명에서 ‘벌레도 갈수록 내성이 생긴다. 농사는 풀과 벌레와 새와의 전쟁이다’ 등 기억에 남을 만한 말들이 직접 터득한 내용이라 진솔하게 와 닿았다. 또, 복숭아 명인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 심사를 하는 과정과 멘토를 맡고 있는 멘티들과 함께 새로운 유기농법을 연구하고 공유하는 모습을 담았다. 농업인 대학에서 만난 지인들과 해충에 대한 연구와 정보 공유를 하는 모습해서 그의 포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도 했다.

이 밖에 주인공이 체득한 천연 소재, 성분, 배율 등 복숭아 유기농법을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럽게 공개해 상생과 환경을 생각하는 주인공의 진심이 잘 묻어났다. 또 예비 귀농인에게도 차별화된 농법이 갖는 유익이 무엇인지, 과학적인 농법 습득이 왜 필요한지, 농사철학이 필요한 이유, 먹거리에 대한 농민의 자세 등 귀농정보를 제공하는 데 일조하였다. 농사에 관해 잘 모르는 시청자가 보아도 여러 가지 유기농 기법이 흥미롭게 보였고 우리의 미래와 후손을 생각하자는 메시지가 방송 종료 후에도 깊은 여운을 남겼다. 내륙지방에서 촬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경치나 복숭아 밭 수확, 농장에서의 작업 등 시원시원한 영상미와 안정적인 앵글, 적재적소에 맞는 화면 편집을 보여주었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7. 28.	시청률	0.042

【총 평】

<국민리포트> 취재 아이템 모두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담아냈다는 점에 의미가 있었다. 특히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급식농가와 학부모 모두를 살리는 '학생 식재료 바우처 사업'을 비롯해 '청년센터 라브리'는 지역사회가 취업에 지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배려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고, '이색자판기'는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었던 이색적이고 재미있는 소재였다. 또, '보령 머드축제 온라인 체험'은 코로나19 여파로 보령머드축제가 온라인으로 진행돼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내용으로 언택트 시대 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구성 및 내용】

<국민리포트>는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의미 있는 움직임과 작은 변화들을 찾아내서 모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로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계속 되고 있는 점은 희망적이다.

■ 학생 식재료 꾸러미...농가·학생 모두 지켜요

학교 급식 예산을 활용한 학생 식재료 꾸러미 사업은 급식농산물 재배농가와 학부모 모두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신청 시 한명 당 10만원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쌀부터 각종 채소 등 다양한 친환경 식재료 들이 구성된다. 모바일 신청 외에 주소를 알려주는 것으로도 가능하게끔 절차를 간소화하여 모든 해당 가정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했다. 서울에서는 86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갔고 그만큼 농산물 재배농가도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 '청년센터 라브리'...청년들의 꿈·희망 키워요

학습과 소모임이 가능하고 진로컨설팅과 심리상담도 가능한 청년센터 라브리가 생겼다. 카페같은 분위기에 넓고 쾌적한 공간이 마련되어 청년들이 공부하는 물론 기분전화도 가능하다. 특히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매주 수요일은 음료, 간식도 제공한다.

■ 기발한 청년 착상 '이색 자판기' 잇단 등장

경기도 고양시의 한 역 광장에는 특이한 자판기가 생겼다. 고민 있는 청소년에게 조언을 해는 자판기다. 9개의 주제로 나눠 조언 및 작은 선물상자가 제공되는 이 자판기는 대학생 제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한 영화관에서는 중고거래 자판기도 생겼다. 시간이나 장소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접목되었다. 이 자판기 역시 대학 벤처 동아리에서 개발한 것이다.

■ 코로나19 여파...보령 머드축제 온라인 체험

서울의 한 청년이 보령 머드축제의 온라인 체험을 즐긴다. 미리 주문한 체험 키트와 함께 온라인에서 알려주는 대로 머드 비누를 발라보기도 하며 간접적으로 축제를 즐긴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축제지만 새로운 표본이 되길 기대한다.

프로그램	특특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0. 7. 28.	시청률	0.053

【총 평】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경제 상반기에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 일본 수출규제 WTO 재판, 서민 경제 정책 핵심 세 가지를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경제&이슈 “2분기 GDP 성장률 -3.3%, 하반기 경기회복 전망은?”에서는 지난 1, 2분기의 내수경기와 수출입 증감률을 분석하고 2분기 성장률을 전망하고 시각을 조금 더 넓혀 하반기 경기 반등까지 예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가 코로나19 영향을 어떻게 받았는지 지표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경제성장률의 현실과 해석, 하반기 회복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또, 일본 수출규제 WTO 재판 돌입과 전망을 살펴보았다.

‘S&News’ 정책 키워드는 “#유동성 어디로?, #P2P 대출제한, #렌터카 ‘피해주의’ 등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 위주로 아이템을 선정해 방송했다.

【구성 및 내용】

지난 1,2분기의 경기 하락추세를 분석하고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의 경우와 비교해 보고 이에 대응하는 정부 전략을 소개했다. 2분기 수출입 증가 추세도 다루었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전세계적 하락추세에서 여러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선전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러한 면이 부각되었다. 또, 지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도 자연스럽게 강조되었다. 2분기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성장률이 -3.3%를 기록했으나 내수부분은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여 정부의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활성화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풀은 효과로 분석하였다.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유례없는 불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선방을 해나가면서 세계 주요 선진국 충격에 비해 양호한 감소폭을 보였고, 다른 주요 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큰 차이가 없어 안정된 경제 성장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경제&이슈>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WTO 재판 경과에 대해 다루고 그 전망까지 해보았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올라간 우리나라의 위상과 WTO내 국가 이미지 상승과 연관지어 분석해 공감하는 부분이었다. 이와 함께 유명희 본부장의 사무총장 가능성도 꽤 높게 예상을 했는데 설득력 있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WTO재판 절차에 대해 지난 6월 2일 정부는 다시 재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WTO의 사무총장 선거에 유명희 통성교섭본부장이 유력시되자 일본에서는 아프리카 후보를 지지하며 저지하고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가 어떤 경우에도 WTO 재판에서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일본이 더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고 일본이 WTO의 절차를 위반했다는 오점이 있어 우리 정부가 유리한 입장이며, 의연하게 대처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해 설득력 있었다. <S&News>는 유동성과 P2P 대출 제한, 렌터카 피해 예방에 대해 다루었는데 하나같이 다 관심을 끌 만한 소재였다.

프로그램	KTV 대한뉴스		
방송일자	2020. 7. 30.	시청률	0.017

【총 평】

KTV 대한뉴스는 집중호우 피해와 코로나19 확진자 소식부터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나온 내용과 청년 일자리 사업, 중소기업 지원 방안과 미국과의 통화스와프까지 다양한 분야의 소식을 다루었다. 뉴스링크는 한미 통화 스와프, 테트라포드 점검, 마스크 성지순례를 소개했고, 유용화의 오늘의 눈은 국가정보원의 역사와 부작용을 살펴보고, 현재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까지 함께 다루었다.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경기 부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 사업 등을 다루었다. 정부는 경기 침체를 사전에 예방하고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려고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중부지방 장맛비 계속…산사태·침수피해 우려
대전 지역의 피해 상황을 시작으로 피해가 컸던 지역 위주로 소개가 했고 기상청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차후에도 있을 호우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공하기도 했다.
- 청년 일자리사업 시작…최대 11만 명 지원
코로나19로 청년실업률이 더 높아지고 악화될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에 임금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전했다.
- 문화·체육·관광 분야 7천800명 일자리 지원
코로나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 관광, 문화, 예술 분야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및 일경험 지원 사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소식이었다.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 관심이 꼭 필요한 것이라 반가운 소식이었다.
- 코로나 이후 학교 역할 논의…국민과 머리 맞댄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교 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1학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서 한 번쯤 점검해볼 만한 내용이었고 국민과 함께 고심을 하고 있는 정부의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고, 사회적 협의에 대한 부분도 강조되어 시사하는 바가 컸다.
- 뉴스링크 ‘통화스와프’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여 이해를 도와준 점이 좋았고 테트라포드 사고도 바닷가를 많이 찾는 이 시기에 경각심이 들게 하는 내용이었다.
- 유용화의 오늘의 눈 ‘국정원 명칭 변경’
국가 정보원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다루었고, 현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국정원의 역할도 제대로 부각되었다. 과거 국정원의 부정적인 면을 통해 개혁의 필요성과 정당성도 자연스럽게 강조되었다.

프로그램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		
방송일자	2020. 7. 30.	시청률	0.000

【총 평】

장마철이자 피서철이 다가와 바다나 강, 계곡으로 피서객들이 몰리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무더위 위협, 휴가철 안전사고’를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수칙을 알려주었다.

특히, 안전사고의 유형을 해상, 강과 하천, 국립공원 등으로 나뉘어 살펴본 구성이 눈길을 끌었고, 익수자 긴급 구조, 다슬기 채취관련 수난 구조, 등산 중 낙상사고 구조 등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현장감과 흡인력을 이끌었다. 또, 물놀이 전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 음주 후 수영금지 등 국민행동요령과 안전수칙 등 사고예방 대책을 해결책으로 제공한 점도 시청자 만족도를 제고했다.

【구성 및 내용】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전국의 해수욕장, 국립공원, 하천 등으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다. 레저보트 기관고장으로 바다표류, 다슬기 채취 사고, 어린이들의 물놀이 시 사고, 개별고립사고 등 사고 유형도 다양하다. ‘무더위의 위협, 휴가철 안전사고’는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하천, 계곡, 등산 등으로 휴가를 떠나는 이들에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다뤘다. 서핑보드와 해수욕객의 충돌 등 일반적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고 유형들 또한 다양하게 다루었다.

■ 안전사고 구조활동

익수자가 다수 발생한 사고로 헬기가 투입되어 구조활동이 이루어졌고, 기관고장으로 갯바위쪽으로 레저보트가 밀려가는 상황에서 신속히 구조활동이 진행됐다. 해마다 익수자를 구조하는 일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함이다.

■ 물놀이 안전사고

물놀이 안전사고는 궂은 날씨에 더욱 자주 일어나는데, 최근 5년간 물놀이 인명피해 발생현황은 하천, 갯벌, 해변, 계곡, 해수욕장 순으로 발생했다. 그만큼 해수욕장에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물놀이객 각자도 주의해야 한다. 관광객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되게 만든다. 해양경찰은 해양레저를 즐기는 사람의 경우, 특히, 서퍼보드 같은 경우 부식상태를 확인하며 기상이 좋지 않을 경우 이용객 상호간 간격을 유지하게 계도하고, 물놀이객과 서퍼 간 충돌 사고 예방도 필요하다.

■ 국립공원의 안전관리

여름철 성수기를 맞이하여 다양한 안전관리 대비 및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물의 점검이 이뤄진다. 익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안전선, 부표 등의 점검이 동반된다. 여름철 등산의 경우에도 위험상황이 발생한다. 여름철 체력은 물론 태풍 등의 기상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